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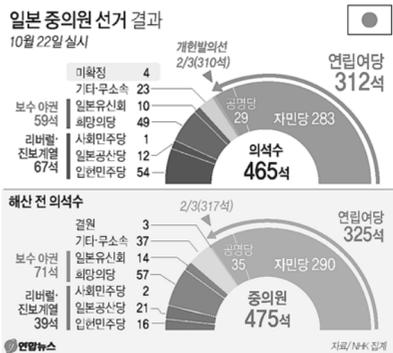
# 북한 핑계로 자위대 강화

일본 총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가 23일 도쿄의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개헌과 관련,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폭넓게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신뢰를 배경으로 북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 아베 ‘북풍몰이’ 日 총선 압승 트럼프와 대북 압박 강화할 듯

사학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풍몰이’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여세를 몰아 북한을 핑계로 자위대 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개헌과 관련,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폭넓게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추진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당의 공약에 포함됐다고 거론한 뒤 “여야에 관계없이 폭넓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이해를 포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시행 목표라는 스케줄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뒤 국회 헌법심사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신뢰를 배경으로 북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5일 일본을 방문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과는 북한 대응에 시간을 갖고 협의를 진행, 긴밀한 연대를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과도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최대의 도전이라고도 거론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선거 당일 밤 압승이 예상된다는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TV와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은 힘으로 압력을 가해 북한이 ‘정책을 바꿀 테니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할 상황을 만들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는 차후에도 대북 강경책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며, ‘표심’을 명분으로 대북 압박 강화라는 공약 실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 문제를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썼던 아베 총리는 선거 유세기간 내내 가는 곳마다 출근 북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장 역시 전날 선거 결과에 대해 “아베 내각이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특히 안전보장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지지를 받았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들이며 북한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은 외교 채널을 통한 북한 압박과 일본 방위력 강화라는 두 가지가 축이었다. 따라서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출범할 4차 아베 내각이 향후 두 가지 모두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안경 쓴 트럼프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용 리무진편으로 버지니아 주 스텔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트럼프 앞둔 트럼프 “대북 정책 완벽해서 충격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북 대응과 관련,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준비돼있다”며 “민기질 않을 만큼 잘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는가? 답은 ‘예스’(yes)”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누가 알겠는가”라고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다음달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핵 위협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대북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AFP는 “그런 일”을 두고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을 암시하며 한 말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제재 동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정말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중국의 최근 대북 제재 강화를 칭찬했다.

또 시 주석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북한과 관련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량의 93%가 중국을 통한 정도”라며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북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19일 한 행사에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 능력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정점에 이르렀다”며 북한이 핵 능력을 완성하기까지 몇 개월만을 남겨놓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이 대북 직접 대화채널을 언급했을 당시 “시간 낭비”라며 “대화무용론”을 제기했다가 지난 13일 이란의 핵협정 ‘불인증’ 선언 직후 “협상을 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열려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연 바 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104 무축천의 명재상 적인결

적인결(狄仁傑, 630-700)의 자는 회영으로 병주 태원 출신이다. 축천무후가 세운 무주의 명재상으로 국로(國老)로 불리었으며 많은 인재를 발탁, 천거해 왕조 발전에 기여했다.

과거 명경과에 급제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부상서 엄립본의 눈에 띄어 병주 법조로 발탁되었다. 고종 재위시 대법관격인 대리승이 되었다. 엄정한 법 해석과 감직한 인품으로 명성을 날렸다. 1만 7천건의 사건을 판결하면서 오판이나 송사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고종 말기 저주와 북주자사를 역임하고 무주 건국 이후 재상직에 올랐다.

일찍이 감직한 인품으로 신임을 받았다. 고종 의봉 원년(676년) 신하 권

692년 내준신이 죄를 꾸며 그가 모반했다고 고발했다. 그는 모반을 인정했다. 축천이 불러 “경은 모반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무슨 까닭인가?”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고문으로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고 답하였다. 감성서 팽택으로 쫓겨났다. 697년 봉각난대 판장사가 되어 다시 재상에 발탁되었다. 축천의 조카인 무승사와 무삼사는 태자 책봉을 간절히 바랐다. 그가 조용히 황제에게 말하였다. “고모와 조카 사이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와 비교하면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폐하께서 아들을 세우면 천만년 뒤에도 태모에 모셔져 제사를 올리고 무궁하도록 뒤를 이을 것이지만, 조카를 세우신다면 아직 조카가 천자가 되어 가지고 태모에 고모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올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 사건 1만7000건 해결 명판관

선재와 범회의가 실수로 태종 능에 있는 축백나무를 훼손하였다. 고종이 대로해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였는데大理 政 적인결이 “두 사람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 상주했다. 고종은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불효자가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 한 그루의 축백나무 때문에 두 명의 신하를 죽인다면 후세에 폐해를 어찌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가 병주의 법조로 있을 때 동료 정승들이 오랑캐 땅에 사자로 가야했다. 동료의 모친이 늙고 병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늙고 병들었는데 어찌 그로 하여금 멀리 밖으로 가야하는 격정거리를 있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를 대신해 사자로 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무축천은 내준신, 색원래, 주홍 등 흑리를 중용해 공포정치를 시행했다. 추사원을 설치해 무씨 통치에 반대하는 중진 귀족들을 가혹히 처단하였다. 재상에 취임하자 억울한 누명에 빠진 관료들을 옹호하고 조정의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690년 전시(殿試) 제도를 실시해 많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했다. 스스로 추천하는 자거(自舉), 유능한 무관을 발탁하는 무거(武舉) 등을 시행했다. 무축천의 광초헌재(廣招賢才) 정책이 부응해 많은 인재가 임용됨으로써 관료체제가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적인결 “이는 짐의 집안일이나, 경은 알고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는 재차 “어느 것인들 폐하의 집안일이 아니겠습니까?”라며 여류왕 이현을 불러 돌아오도록 설득했다. 이로써 이씨 후손이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돌궐이 변경을 침범해 하북이 소란스름자 그를 하북안주대사로 삼아 토벌토록 하였다. 백성들을 위무하고 돌궐에게 약탈당한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스스로 거친 헌미를 먹고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목을 베었다. 마침내 하북이 안정을 되찾았다.

재상으로 있으면서 많은 인재를 추천했다. “어진 사람을 천거한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니 사사로운 것을 위함이 아니요”라며 유송, 장간지, 두회정 등을 추천했다. 그들은 후일 공경과 재상 지리에 올랐다. 거란 장수 이해고와 낙무정은 여러번 당군을 괴롭혔는데 당에 귀순을 청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으나 “진실로 나라에서 이로운이 된다면 어찌 자신을 생각하겠는가”라며 사면을 건의했다.

690년 사망했다. 축천이 울면서 “조정이 텅 비었구나”고 말하였다. 조정에서 큰 일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결정 못하면 축천이 큰 탄식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나의 국로를 빼앗아 간 것이 어찌 너무 이른가” 사흘간 조회를 하지 않았고 양국공으로 추봉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